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신데 이어 야외에 있는 구호문헌들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가 자리잡고있는 안주지구는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작전지역이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에 비밀근거지를 정하신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수령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

시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

문헌을 보시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즐기치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튼튼없는 만년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

길을 곳곳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두산혁명전적지의 종업원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

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전적지들의 관리운영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 일본에서 진행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이 12일 일본 오기나와에서 진행되었다.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주체사상연구회 전국련락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 일본위원회와 주체사상국제연구소 그리고 오기나와의 인사들, 각지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일본 주체사상연구회 전국련락회 회장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오기나와련락회 대표 사쿠가와 세이이치는 오기나와현민들속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사

업을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오기나와련락회 부대표 다이라 겐이치는 현 일본정부의 대미주종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자주를 위한 오기나와의 투쟁은 일본에서 자주를 확립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 고문 무사고지 강히테는 《김정은저작집》의 출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국주의, 《세계화》를 철저히 경계할것을 호소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간사 이런락회 공동대표 이께베 유키에는 주체사상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일본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간도련락회 공동대표 하나와 후지오는 오기나와에서 《김정은저작집》출판기념모임이 진행되는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촉진시키는 주체사상을 더욱 광범히 연구보급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자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글 발표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14일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와 강성변영, 후손만대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애국헌신의 길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신 애국주의라고 강조하였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 애국적공헌을 한 수많은 영웅들과 애국자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

과 활동으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애국주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위대한 애국자는 아직 모른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야말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에 대한 가장 뜨겁고 밀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

변영과 민족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참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선민중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장식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여하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된다. 글은 해배의 온 겨레가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해나가며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세기와 년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국도분렬의 력사는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조 하고 더해만지고있는 민족의 막대한 희생과 소모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시작된 우리 민족의 이 비극적인 치욕의 력사는 전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제때에 바로잡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분렬의 아픔을 가셔내지 못한 우리 겨레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특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며 겨레와 민족의 소원을 외면한 채 대결만을 주도하여온 당국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더이상 그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국도량단과 민족분렬의 력사에 끝장을 내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힌 우리 최고수뇌부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지난 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남조선당국에 보낸 뜨거운 호소가 바로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불미스러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서로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다.

이 제안에는 또한 나라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차렴되고있다.

우리가 오늘까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중대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며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온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운당치 못한 태도와 거부적인 립장은 지금도 구태의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1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명에 따

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들에게 다시금 이 공개서한을 보낸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립장과 자세를 바로가지는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누구이든, 어떤 정견과 신앙을 가지고있는 언저나 민족중시, 민족우주의 립장에서 백사만사를 덜어놓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성사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중대제안에 위임없이 진행되여온 남조선당국의 배라살포는 물론 북남합의를 어기고 재개한 대북심리전방중에 대하여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가 상대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전면 중지할데 대하여 제안하였을뿐이다.

한것은 지난날을 두고 팔가벌부하는 데 집착한다면 또 다른 반복질서와 대결을 낳는 악순환이 거듭될수 있다는 진경에서였다.

투쟁도 펼쳐보지 않고 불것이 없다는 식으로 좋은 책을 내던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조선당국은 관계개선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깊이 새겨보지도 않고 함부로 상대를 걸고들치 말아야 하며 남조선의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은 겨레의 뜨거운 호소에 목소리를 합쳐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 관계개선의 분위기부터 조성하여야 민족의 단합과 화합이 도모되고 거기에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는 참된 길이 있다.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불신과 대결을 낳는 가장 큰 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결단을 내리는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는 분위기 조성도 요구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군사적적대행위를 근절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

한 정세가 전쟁정경으로 치닫고있는 조선반도의 현 상황에서 크지 않은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순간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전면전쟁이 터지면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뿐이다.

그대신 우리 민족은 사람도, 산천도, 이룩해놓은 모든 재부도 다 잃는 재난만 당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제안한것이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적적대행위의 전면중지이다.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남조선당국이 떠드는것과 같은 《위장평화광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리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며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배틀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쌓기》는 더욱 아니다.

또한 있을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그 무슨 《금번사태》나 《체제의 불안정》을 수습하기 위해 내놓은 정략적인 조치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관계개선의 일환으로 즉시 중지할것을 제안한 《키 리벌프》,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는 미명하에 벌여질 위협천만한 북침전쟁행위이다.

아마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들에 할당된 타격목표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물들이고 이 연습체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 련합상륙작전이 평양강점을 노리게 되어있다는 엄연한 하나의 사실만 놓고서도 남조선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일반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장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겨냥하고 벌리는 침략전쟁행위를 중지하라는것이다.

그 연습마저 미국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고 미국과의 《합동》과 《협동》이 버릴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여 정하고싶다면 우리 나라 령토나 령해, 령공을 벗어난 한천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하라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다투은감이 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평

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침략자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대신 영구분렬과 지배를 노리는 파렴치한 강점자이며 수천만 우리 겨레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피맺힌 한을 남긴 불구대천의 원수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숨미사대와 공미굴종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원수를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돌체치고 동족의 진정도, 뜨겁게 내민 화해의 손길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에 대하여 말한다면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외세를 끌어들이 민족의 안전과 평화보장에 저예를 주는 군사적행동을 벌리는 일이 없게 될것이다.

우리는 벌써 서해 5개섬 열섬수역을 포함한 최전연의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군사적적대행위까지 전면중지하는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진정이 담긴 중대제안을 무력대고 의심하거나 혼돈하지 말아야 하며 경솔하게 거부해나서지 말아야 한다.

거부하면 할수록 북남관계개선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거세지는 항거를 막지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침략전쟁행위를 비롯하여 군사적인 온갖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것으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정당한 호소를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서야 한다.

군사적적대행위라는 기본장애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때 진정한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며 바로 여기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방도가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또한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함께 취해나갈 때 더욱 확고히 실현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당면한 핵재난은 팔도와 오기나와에서, 서부태평양수역과

미국본토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매없이 쏟아드는 미국의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에 의하여 초래되게 되어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북남관계개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제안한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할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의 기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무서운 핵합력을 앞질러 막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더이상 미국의 위협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정중히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동문서답식으로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마치 우리의 핵시험 등으로 발단된것처럼 여론을 돌리면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제안에 대한 거부립장만을 내놓고 표명하였다.

언제나 말은 바른대로 하라고 하였다.

굳이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 부터 발단되었다.

그때 미국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것이 미합중국의 핵정책》이라며 남조선에 1,000여발의 핵탄과 발사수단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도처에 비축하여놓았다.

이렇게 되여 발생한것이 조선반도의 핵문제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섬의 있는 노력과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마련된것이 다름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선언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당국자들이 교체되었다 하여도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제 땅에서 발생한 핵문제의 근원만은 똑바로 알고 말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